

더불어
민생살리기본부 **보도자료**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 본부장 윤후덕·인태연 | 수석부본부장 민병덕·박용갑

보도일시	2025. 5. 30. (금)	배포일시	즉시 배포
사무국	더불어민주당 을지원국 02-6788-3631	문의	윤후덕의원실 강지영 비서관 02-6788-6904

민주당 민생살리기본부-대구 서문시장 상인연합회 경청 간담회 개최

- 대구상인연합회 대구 서문시장 노후화 개선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요구
- 인태연 민생살리기본부장 “현장의견을 더욱 자주 듣고 소상공인지영업자의 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 김부겸 총괄선대위원장 간담회 참석해 대구 상인 목소리 경청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민생살리기본부는 2025년 5월 29일(목), 대구 서문시장 2지구 종합상가 문화관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인태연 민생살리기본부 공동본부장, 홍의락 대구시당 총괄선대위원장, 허소 대구시당위원장, 박재청 대구상인연합회 회장과 김양수 대구서문시장 2지구 대표회장을 비롯해 대구서문시장 1·2·4·5지구, 아진상가, 명품프라자 등 대구 서문시장 상인연합회 소속 12개 전통시장 상인회 관계자가 참석해 대구 서문시장의 현안을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제20대 국회에서 대구수성구갑 국회의원을 지낸 김부겸 총괄선대위원장 역시 간담회에 함께 하여 상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간담회에 먼저 나선 박재청 대구상인연합회 회장은 “고금리·고물가로 매출이 급감한 대구 시장 상인들이 정부차원의 즉각적 지원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며 대구 서문시장 노후화 개선과 4지구 재건축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김양수 대구서문시장 2지구 대표회장은 “서문시장 2지구 종합상가 시설 노후화 개선을 위한 관심과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건의했다.

대구 서구시장 상인들은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을 전담할 중기부 제2차관 도입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개선(지원기간 확대등)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전통시장 전문 연구기관 설립 ▲전통시장 박물관 사업 ▲전통시장 재구조화 사업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 대구 서구시장 상점가 상인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인건비 보조 사업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상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은 인태연 민생살리기본부 공동본부장은 “민주당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지원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경청하는 자리를 더욱 자주 만들고 현장 중심의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민생살리기본부 요청으로 자리에 함께한 김부겸 총괄선대위원장은 “서문시장은 대구 경제의 심장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가 힘을 모아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거듭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며, 전통시장 안전시설 현대화 예산 확보와 지역화폐 국고지원 증액을 약속했다.

민주당 민생살리기본부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시장매니저 사업개선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 확대발행 등 긴급한 경제정책이 시급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구 서문시장 현대화시설 개선 ▲전통시장 재구조화 사업 등은 정부·지자체가 함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민생살리기본부는 앞으로도 상인들의 정책 제안을 수렴해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끝/

※ 첨부자료 : 간담회 단체 및 현장 사진



